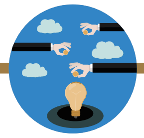


대표적인 연말 배당 이슈

중장기적 테마로 거듭나는 배당주

배당투자는 연말행사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까?
올 연말, 배당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투자메리트도 알아보자.

올해도 국내증시는 장기간 이어져 온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해외증시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고점을 기록한 시기가 2015년임을 상기해 볼 때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승장에서 소외된 듯한 모습이다. 당분간 국내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투자는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 박스권 흐름에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주주에게 기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익증가에 따른 주식가격 상승과 배당정책이 그것이다. 최근 배당관련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해보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메리트를 확인해보자.

정찬규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ckjung@hanafn.com

▶ **학력·자격증**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투자자산운용사, 선물거래상담사

▶ **경력**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본부
주식 및 대체투자 담당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PB 포트폴리오 매니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분석 및 전망
국내외 주요 투자상품 개발 및 분석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확대 뉴스

삼성전자는 10월 말, 1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렸다. 추가적으로 향후 3년간 기업현금 흐름의 30~50%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분기 배당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역시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장기적으로 25~3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포스코는 대기업 중 최초로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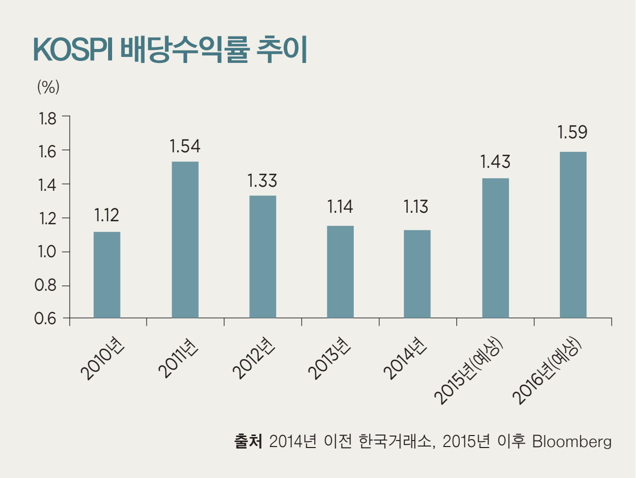
이 같은 주요기업의 행보는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정부정책과 관련이 깊다.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이 실제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KOSPI 배당수익률 vs. 예금금리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2014년 KOSPI 배당수익률(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수치)은 1.13%로 2014년 7월 예금금리가 2%를 넘었던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메리트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함에 따라 예금금리는 빠른 수준으로 하락하여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배당활성화 정책으로 KOSPI 배당수익률은 꾸준히 상승해 예금금리에 근접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블룸버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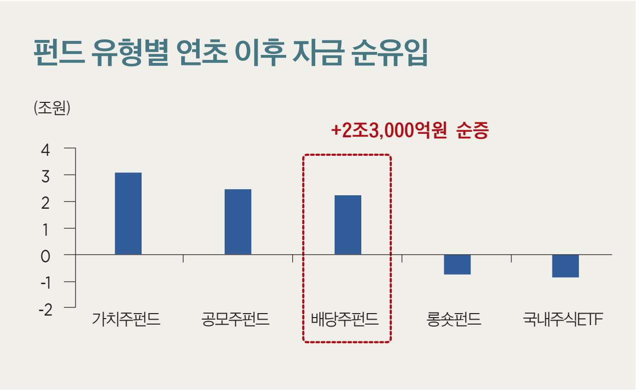
또한 기업들의 배당성향 증가가 지속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배당수익률과 예금금리의 역전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4년 이전 한국거래소, 2015년 이후 Bloomberg

배당주로의 자금 유입 지속

이와 같은 요인으로 배당주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최대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2015년 말까지 1조2,000억원을, 우정사업본부는 1,600억원을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배당주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활발하여 연초부터 현재까지 약 2조 3,000억원 가량이 배당주펀드로 순유입되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12월 결산으로 한 해를 정리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배당은 대부분 기말에 몰리고 이에 따라 배당관련 투자는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정책과 기업들의 배당관련 뉴스는 배당투자를 연말 행사로 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수익률 증가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전에 중장기 테마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배당주에 대한 투자 관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

summary

①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발맞춰 주요 기업의 배당확대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② 저금리기조는 유지되는 가운데 배당수익률은 꾸준히 상승해 예금금리와 배당수익률 역전 가능성도 높아진다.
③ 중장기적 테마로 인식되는 국내 배당주에 대한 투자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2 (006-007)투자_정찬규ok.indd 모든 페이지 2015-12-01 오전 11:24:36